

통제불능경험에 대한 귀인이 과제수행과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백용매 · 김영환

경북의대

본 연구는 통제불능경험에 대한 귀인유형이 과제수행과 감정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불능을 경험한 피험자는 유사한 검사과제에 대한 수행이 저하되었고, 특히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인에 귀인시킬 때 수행수준은 더 낮았다. 둘째, 훈련과제와 상이한 검사과제에 있어서는 통제불능의 경험이 수행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촉진시키지도 않았다. 또한 귀인유형에 따르는 차이도 없었다. 셋째, 통제불능을 경험한 피험자는 우울감과 적대감이 높았다. 특히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인에 귀인시킬 경우에는 우울감이 높았고 외적 요인에 귀인시킨 경우에는 적대감이 높았다. 넷째, 실패의 원인을 내적 혹은 외적 요인에 귀인시키지 않았던 집단은 훈련과제와 유사하거나 혹은 상이한 과제에서 수행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적대감도 높았다.

최근 일부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학습된 무력감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학습된 무력감이란 원래 Seligman, Maier, 및 Geer(1968)가 개를 실험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개에게 통제가 불가능한 혐오사상을 반복해서 제시했을 때, 그 개는 회피가 가능한 혐오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회피행동을 시도하지 않고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무력감이 학습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무력한 상태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부의 우울증과 유사하다고 한다.

동물의 경우 학습된 무력감은 반응과 반응결과간의 비수반성(noncontingency)이 일반화되어 자신의 능력으로는 혐오사상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력감은 반응과 반응결과간의 비수반성 뿐만 아니

라 통제불능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나 해석과 같은 인지적 요소도 중요한 변인이라고 한다(Benson & Kennelly, 1978; Kuiper, 1978; Rizley, 1978). 그래서 무력감이론을 일부의 우울증에 적용하기 위하여 학습된 무력감과 귀인 및 우울증과 인지유형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Abramson, Seligman, 및 Teasdale(1978)은 인간의 학습된 무력감은 실패 혹은 비수반성에 대한 귀인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귀인중심의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귀인시킬 때 무력감이 나타나고, 실패의 원인을 일반화시킬 때 무력감이 일반화되며, 실패의 원인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 무력감은 만성화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수반성보다 실패에 대한 귀인유형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Klein, Fencil-Morse, 및 Seligman(1976)은 해결 불가능한 과제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인에 귀인시키도록 조작한 집단은 외적 요인에 귀인시키도록 조작한 집단보다 수행수준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의 원인을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에 귀인시킬 때에는 후속과제의 수행수준이 떨어지지만 과제의 어려움과 같은 외적 요인에 귀인시킬 때에는 후속과제의 수행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Tennen과 Eller(1977)의 연구에 의하면, 수행하게 될 과제가 점점 쉬워질 것이라고 지시한 후에 비수반적 강화를 시행한 집단은 후속과제에서 수행수준이 저하되었으나 과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시한 후에 비수반적 강화를 시행한 집단은 오히려 후속과제의 수행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Hanusa와 Schulz(1977)는 실패의 원인을 능력부족에 귀인시킨 집단은 노력부족에 귀인시킨 집단보다 더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능력부족에 대한 귀인이 수행수준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실패 혹은 비수반성에 대한 귀인유형이 무력감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무력감의 일반화와 관련된 문제로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역시 무력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다. 그 이유는 무력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 사용된 훈련과제와 검사과제는 거의 유사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훈련과제와 상이한 검사과제를 사용하면 무력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Diener와 Dweck(1978)의 연구에 있어서 아동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경우에는 후속과제의 수행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후속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행동을 모색할 때에는 수행수준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실패 자체에 집착할 때에는 후속과제에 대한 수행수준이 감소했다(Kuhl, 1981). 따라서 지속적인 통제불능을 경험한 후 수행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실패때문에 후속과제

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략을 수립할 수 없거나 혹은 실패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제불능의 경험이 후속과제의 수행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다(Hanusa & Schulz, 1977).

무력감의 경험 혹은 지속적인 실패의 경험이 후속과제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지속적인 실패에 대한 귀인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한 연구들도 있다(예컨대, Kuiper, 1979; Rizley, 1978).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실패를 내적인 요인에 더 많이 귀인시키고 있었다. 또한 BDI에서 우울점수가 높은 사람은 성공을 운에 귀인시키고 실패를 기교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Williams, 1979). 그러므로 우울감은 적어도 실패의 원인을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패에 대한 귀인유형이 수행수준과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예컨대, Weiner, Russell, 및 Lerman, (1979)은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과 같은 일반적인 감정은 수행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특정 감정은 수행결과에 대한 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Weiner 등(1979)은 수치심이나 무능감 및 죄책감은 실패를 능력부족이나 노력부족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킬 때 나타나고 분노나 공포 및 증오감은 실패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에 귀인시킬 때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의 귀인유형은 실패에 대한 피험자의 자발적 귀인이 아니고 실험자의 지시나 피드백에 의해 귀인을 유도했거나 혹은 과제의 수행이 끝난후 실패의 원인을 추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실패의 경험에 대한 피험자의 자발적 귀인유형과 과제수행 및 정서반응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선행된 연구에 따라 본 연구는 통제불능에 대한 자발적 귀인유형이 과제수행과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귀인유형에 따라 통제불능의 경험이 상이한 과제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려고 한다.

방 법

피험자

본 실험의 피험자는 K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 82명 중에서 선정했다. 이들에게 자신의 과제수행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도록 실험적으로 조작한 후 실패의 원인을 귀인시키는 방향에 따라 내적 귀인, 외적 귀인 및 분류곤란 집단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통제집단이 있다. 각 집단에 속하는 피험자의 수를 12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피험자 수는 모두 48명이었다. 이때 각 집단에 속하는 피험자가 12명이 넘으면 그 다음 피험자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을 끝마쳤다.

실험도구

훈련과제 : 훈련과제는 Levine(1971)의 변별학습과제를 본 실험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 훈련과제는 3각형과 4각형내에 원과 5각형이 그려진 공간차원과 빨간색과 파랑색으로 구성된 색깔차원으로 되어 있다. 훈련과제는 모두 8문제였으며 각 문제는 6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귀인질문지 : 귀인질문지는 Weiner등(1979)이 개발한 질문지를 변안해서 사용했다. 이 질문지는 실패의 원인을 능력부족, 노력부족, 운 및 과제요인에 귀인시키는지에 관한 4개 문항과 실패의 원인이 내적 요인, 외적 요인, 혹은 분류곤란한지를 묻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에서 능력부족과 노력부족에 귀인시키는 것은 내적 요인에 속하고 운과 과제요인에 귀인시키는 것은 외적 요인에 속한다.

검사과제 : 검사과제는 훈련과제와 유사한 것과 훈련과제와 상이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과제와 유사한 과제는 이상로와 김경린(1983)이 제작한 적성진단검사(252-가)의 하위검사인 추리력검사를 사용했다. 그리고 훈련과제와 상이한 과제로는 손과 눈의 협응행동을 측정하는 미로검사를 사용했다. 이 협응검사(Coordination tests, Model, TTK-138)에

는 두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왼쪽 손잡이를 돌리면 좌우로 움직이고 오른쪽 손잡이를 돌리면 상하로 움직이도록 되어있다. 이 검사를 사용하여 피험자가 미로를 따라가도록 하는 과제를 주었는데, 종속변인은 제한시간 1분내에 미로를 따라 움직인 거리였다.

감정척도 : 감정척도는 Zuckerman, Lubin, 및 Robins(1965)이 제작한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를 변안해서 사용했다. 이 척도에는 불안감을 묘사하는 10개의 형용사, 우울감을 묘사하는 24개의 형용사, 적대감을 묘사하는 14개의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험자는 현재 자신의 느낌과 비슷한 형용사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절차

본 실험은 심리학과에 있는 행동관찰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했다. 대기실에 있던 피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먼저 피험자를 의자에 앉도록 하고 실험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훈련과제에 의한 통제불능의 조작, 귀인질문지의 실시, 검사과제의 실시, 감정척도의 실시 순으로 진행했다.

통제불능의 조작 : 변별학습과제를 사용하여 피험자가 통제불능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통제불능을 조작하는 방법은 변별학습과제에 있는 빨강, 파랑, 3각형, 4각형, 원, 5각형 중에서 실험자가 임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험자가 추측하도록 했다. 이러한 추리에 대해 실험자는 계속해서 비수반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예컨대, 실험자는 피험자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아니요-예-아니요-아니요-예-아니요-틀렸습니다”로 대답해 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8문제 중 6문제에서 실패하도록 조작했고, 일반적으로 6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고 지시하므로써 피험자가 통제불능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귀인유형의 분류 : 통제불능을 경험하도록 조작한 직후 피험자에게 귀인질문지를 제시하고, 자신이 실패한 원인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질문지에 대해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한 결과에 따라 피험자를 내적 귀인집단, 외적 귀인집단, 그리고 분류곤란집단으로 분류했다.

검사과제의 실시 : 귀인질문지를 실시한 후 피험

자는 옆 방에 가서 두 검사과제를 받도록 했는데, 두 검사과제의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첫 피험자가 훈련과제와 유사한 추리력검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훈련과제와 상이한 미로검사를 받았다면 그 다음 피험자는 미로검사를 먼저 받은 후에 추리력검사를 받도록 했다.

감정척도의 실시 : 검사과제를 실시한 직후 감정척도를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실험이 끝난 후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실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피험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약 30분 정도 걸렸다.

자료 및 자료처리

본 실험에서는 통제불능을 조작한 후 검사과제의 수행점수와 감정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검사과제에서 추리력검사 점수는 검사요강에 따라 채점했고 미로검사의 점수는 4회 반복해서 실시한 후 움직인 전체 거리를 미로검사의 점수로 했다. 그리고 감정점수는 우울감과 적대감을 묘사한 형용사에 대해 표시한 수를 각각 원점수로 하였다.

결과의 처리는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 변량분석을 적용했고 통제집단과 무력집단들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Dunnett 검증을 실시했다. (Keppel, 1973).

결 과

피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후 그 원인에 대한 귀인유형이 과제수행과 감정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각 집단별 피험자들의 수행성적과 감정반응의 점수는 표1과 같다. 그리고 귀인유형에 따라 훈련과제와 유사한 추리력검사의 성적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에 의하면 통제불능을 경험한 무력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1,44)=9.03$, $p<.01$ 내적 귀인집단과 외적 귀인 집단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44)=6.57$, $p<.05$. 즉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

표 1. 집단별 과제수행 및 감정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처리조건	추리력검사 (유사과제)		미로검사 (비유사과제)		감정척도			
	M	SD	M	SD	우울감		적대감	
통제집단	11.08	9.97	39.86	9.65	6.17	2.69	7.75	2.14
내적귀인집단	8.00	2.26	40.76	11.70	9.83	3.07	8.75	1.22
외적귀인집단	9.81	1.38	38.16	5.71	7.58	2.35	10.08	1.38
분류곤란집단	9.83	2.33	31.17	6.97	8.42	2.71	9.83	1.11

표 2. 추리력검사의 변량분석표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58.42	3	19.47	5.81**
통제집단 : 무력집단	30.25	1	30.25	9.03**
내적귀인집단 : 외적귀인집단	22.04	1	22.04	6.57*
집단내	147.5	44	3.35	
전체	205.92	47		

* $p<.05$ ** $p<.01$

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추리력 검사의 점수가 낮았고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은 외적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보다 추리력검사의 점수가 더 낮았다. 그리고 통제집단과 무력집단들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Dunnett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통제집단과 내적 귀인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통제집단과 외적 귀인집단 및 통제집단과 분류곤란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통제집단

표 3. 미로검사의 변량분석표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689.54	3	229.85	2.96*
통제집단 : 무력집단	91.20	1	91.20	1.17
내적귀인집단 : 외적귀인집단	40.56	1	40.56	0.52
집단내	3421.6	44	77.76	
전체	4111.2	47		

* $p<.05$

과 무력집단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적 귀인집단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귀인유형이 훈련과제와는 상이한 미로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로검사의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미로검사의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무력집단과 통제집단 및 내적 귀인집단과 외적 귀인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4집단간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96$, $p<.05$. 4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Dunnet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분류곤란집단과 통제집단, 내적 귀인집단과 통제집단, 외적 귀인집단과 통제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훈련과제와 유사한 과제인 추리력검사에 있어서는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수행수준이 더 낮았고 실패의 원인을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이 외적인 요인에 귀인

표 4. 우울감의 변량분석표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84.83	3	28.27	3.82*
통제집단 : 무력집단	53.78	1	53.78	7.28**
내적귀인집단 : 외적귀인집단	30.38	1	30.38	4.11*
집단내	325.17	44	7.39	
전체	410	47		

* $p<.05$ ** $p<.01$

표 5. 우울감의 변량분석표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1.39	3	13.79	6.01**
통제집단 : 무력집단	29.34	1	29.34	12.77**
내적귀인집단 : 외적귀인집단	10.67	1	10.67	4.64*
집단내	101.18	44	2.30	
전체	142.48	47		

* $p<.05$ ** $p<.01$

시킨 집단보다 수행수준이 더 낮았다. 그러나 훈련과제와는 상이한 과제인 미로검사에 있어서는 통제불능의 경험이 수행수준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통제불능효과나 귀인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불능의 경험에 대한 귀인유형이 우울감과 적대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것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에 있어서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F(1, 44)=7.28$, $p<.01$, 내적 귀인집단은 외적 귀인집단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4)=4.11$, $p<.05$. 그리고 Dunnett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과 내적 귀인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통제집단과 외적 귀인집단 및 통제집단과 분류곤란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적대감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F(1, 44)=12.77$, $p<.01$ 귀인유형에서 내적 귀인집단보다 외적 귀인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44)=4.64$, $p<.05$. Dunnett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과 외적 귀인집단 및 통제집단과 분류곤란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통제집단과 내적 귀인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단은 우울감과 적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불능을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은 외적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은 반면에 실패를 외적인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은 내적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보다 적대감이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훈련과제와 유사한 과제의 점수가 더 낮았고 실패를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유사과제의 점수가 더 낮았다. 그러나 훈련과제와 상이한 과제로 수행수준을 측정했을 때에는 통제불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제불능에 대한 귀인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력감 효과는 검사과제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Kuhl(1981) 및 Miller와 Norman(1979)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과제와 상이한 유형의 과제로 수행수준을 측정하면 오히려 촉진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Hanusa와 Schulz(1977) 및 Wortman과 Dintzer(1978)의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또한 훈련과제와 유사한 과제에 있어서는 통제불능경험이 수행수준을 저하시켰으나 실패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에 귀인시킬 때 수행수준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력감은 통제불능의 경험에 의해 유발된다는 Seligman등(1967, 1968)의 초기모형과 학습된 무력감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의 귀인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Abramson등(1978)의 수정모형을 동시에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된 무력감은 통제불능의 경험과 피험자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의존한다. 이 이유는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수행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외적 요인에 귀인시킬 때 보다는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킬 때 수행수준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Perterson, Luborsky, 및 Seligman(1983)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귀인유형은 우울감의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우울감을 더 심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귀인중심의 수정모형은 초기의 모형을 거부한다기 보다 오히려 보완하기 위한 모형으로 생각된다.

통제불능의 경험과 감정반응에 관한 결과에 있어서 통제불능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감과 적대감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Gatchel, Paulus, 및 Maples(1975) 및 Roth와 Kubal(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불능을 경험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반응은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통제불능을 경험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내적인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은 우울감이 높았고 외적인 요인에 귀인시킨 집단은 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이나 통제불능의 경험은 일반적

인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특정한 감정은 귀인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Weiner등(1979)의 귀인중심적 감정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하나의 현상은 귀인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분류곤란 집단에 대한 통제불능경험의 효과이다. 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패의 원인을 내적 혹은 외적 요인에 귀인시키지 않았던 피험자도 유사과제 및 상이한 과제에서 수행수준이 낮고 적대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귀인유형보다 통제가 불가능한 실패의 경험 자체가 수행수준을 저하시키고 적대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이 주로 귀인을 조작했거나 실패의 원인을 추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통제가 불가능한 경험 자체가 수행수준과 감정반응에 미치는 효과는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귀인유형과 분류곤란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경험의 효과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및 상담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행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행동과 행동의 결과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므로써 후속 행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담적 측면에서는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공감을 경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제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고 잘못된 부정적 귀인유형을 긍정적 귀인유형으로 변화시키도록 훈련시키므로써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이상로·김경련(1983). 적성진단검사(252-가), 중앙적성출판부.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

- 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Benson, J. S., & Kennelly, K. J. (1976). Learned helplessness: The result of uncontrollable reinforcements or uncontrollable aversive stimuli?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38-145.
- Diener, L. I., & Dweck, C. S. (1978). An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Continuous changes in performance, strategy, and achievement cognitions following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51-462.
- Gatchel, R. J., Paulus, P. B., & Maples, C. W. (1975). Learned helplessness and self-reported affe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4, 732-734.
- Hanusa, B. H., & Schulz, R. (1977). Attributional mediators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02-611.
- Keppel, G. (1973). *Design and analysis: A researcher's handbook*.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Klein, D. C., Fencil-Morse, E., & Seligman, M. E. P. (1976).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and attribution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08-516.
- Kuhl, J. (1981). Motivational and functional helpless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55-170.
- Kuiper, N. A. (1978). Depression and causal attribution fo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236-246.
- Levine, M. (1971). Hypothesis theory and onlearning despite ideal S-R reinforcement contingencies. *Psychological Review*, 78, 130-140.
- Miller, I. W., & Norman, W. H. (1979).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A review and attribution theory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86, 93-118.
- Miller, W. R., & Seligman, M. E. P. (1975). Depression and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4, 228-238.
- Rizley, R. (1978). Depression and distortion in the attribution on caus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32-48.
- Roth, S., & Kubal, L. (1975). Effects of noncontingent reinforcement on tasks of differing importance: Facilit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680-691.
- Seligman, M. E. P., & Maier, S. F. (1967). Failure to escape traumatic shoc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4, 1-9.
- Seligman, M. E. P., Maier, S. F., & Geer, J. H. (1968).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in the do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3, 256-262.
- Tennen, H., & Eller, S. J. (1977). Attributional components of learned helplessness and facili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265-271.
- Weiner, B., Russell, D., & Lerman, D. (1979). The Cognition-emotion process in achievement-related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11-1220.
- Williams, R. G. (1979). The Effects of depression upon causal attribution patter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 6356.
- Wortman, C. B., & Dintzer, L. (1978). Is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the learned helplessness phenomenon variable? A critique of the Abramson learned helplessness phenomenon variable? A critique of the Abramson-Seligman-Teasdale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75-90.
- Zuckerman, M., Lubin, B., & Robins, S. (1965). Validation of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in clinical situ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94.

**Effects of the Attribu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on
Task Performances and Affective Responses**

Yong-Mae Baek and Young-Hwan Kim

Kyungpook University Hospital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ribu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experiences on task performances and affective responses. In the learned helplessness training phase a modified Levine's discrimination task was administered to subjects who experienced the noncontingent feedback. Then, an attribution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6 subjects who experienced the noncontingent feedback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one of internal attribution group, external attribution group, and unclassified group. 12 subjects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learned helplessness served as a control group in the present study. In the test phase two different tasks, one similar to the training task(Logical deduction test) and the other unsimilar task(S-Maze test)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and then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was also administered to all the subjects to check their depressive and hostile state.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 The performance deficit of the subjects exposed to the helplessness condition was found only in the logical deduction task which is similar to the helplessness training task. Internal attribution group demonstrated lower performance than external attribution group in the similar task. Internal attribution group showed a higher level of depressive affect than external attribution group, and external attribution group showed a higher level of hostile affect than internal attribution group. These findings were discovered within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original model and the reformulated model of the learned helplessness.